

장흥군 '연애컨설팅 사업' 추진 눈길

미혼남녀 결혼 장려하고 저출산·고령화 해소 결혼정보회사와 협약...인구 증가 효과 기대

“장흥군 처녀·총각과 결혼하세요.” 장흥군은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 잠한 기획과 업무협약을 통해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은 미혼남녀의 결혼장려와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해 전남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바쁜 직장과 일상생활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에게 개인별 맞춤형 매칭서비스와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49세 이하 미혼남녀로 장흥군에 거주하고 일정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결혼정보회사 ‘잠한기획’의 성혼 프로그램, 맞춤형 매칭서비스, 스피치 교육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오는 23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대상자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참여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잠한기획(061-863-7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맹지영 잠한기획 대표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자리, 정주여건, 육아여건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난 8일부터 4일 동안 열린 청소년 정책학교에서 참가자들이 그룹을 지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영암군제공>

영암군, 청소년 '정책학교' 운영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사회적 이슈 토론타기

영암군 청소년 자치기구가 최근 '청년모험 모여서 행동하자!'라는 주제로 고려대 문화대학생들과 연계한 정책학교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린 정책학교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과 이주여성인권으로 불거진 국제결혼의 문제

점 등 굵직한 사안들을 의제로 다뤘다. 6개조 42명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4개의 사전의제에 대해 토론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또 이틀동안은 현장에서 의제를 선정해 토론과 발표를 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활동을 총괄한 청소년 자치기구 류정웅

단장은 “연대활동이 처음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각종 사회 이슈들을 대학생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위해 영암을 찾은 고려대 여름연대활동단 김도형 단장은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감사하다”며 “영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을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영암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암군이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어야 한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 이내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

절화작약 재배의 모든 것 강진군, 기술 책자 발간



강진군이 유망 화훼 작목인 절화 작약의 새로운 재배기술 등이 담긴 책자(사진)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전남농업기술원은 유망 화훼 작목인 절화 작약의 새로운 재배기술 및 강진의 현장 실증 적용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강진 절화 작약은 전국 재배 면적의 90%인 11.7ha가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기술 매뉴얼이 부족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컸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절화작약 재배기술의 국내외 자료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조기 개화를 위한 저온처리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재배기술 등을 표와 그림 위주로 설명했다. 또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실증 재배한 결과들을 시기별로 정리,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군, 연근 이용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연꽃잎차·연근가루 등 혈액순환·해독효과 탁월

강진군에서 자란 연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물 속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근을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재배기술 보급, 유통망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은 다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뿌리채소이다. 또 연근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57mg으로 레몬 한 개 함유량인 70mg과 맞먹는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 있어 빈혈예방 및 피로회복에 좋다. 이 밖에도 혈액 순환, 해독 효과,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특히 강진 성전면 월평리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느린건조(주)는 연근을 이용한 연근 가루, 연꽃잎차, 연근떡국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강진의 자랑인 고려장자 모양과 빛깔의 연잎 전병을 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느린건조(주)는 강진 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꽃 특유의 은은한 향과 피부미용에 좋은 성분을 활용해 향수, 비누, 팩 등 미용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청정지역 강진군에서 자란 연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추석명절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글

“공정하고 엄격한 검찰권 행사 할 것”

박규형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공정하고 엄격한 검찰권 행사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검찰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규형(44)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지역균형과 융통성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지청장은 “토착형 비리와 보조금 사업 편취 등 농촌지역에 만연한 고질

적 비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출신인 박 지청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41회(연수원 33기)에 합격해 울산지검, 대검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등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